

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 전망과 과제

정성희 선임연구위원, 홍보배 연구원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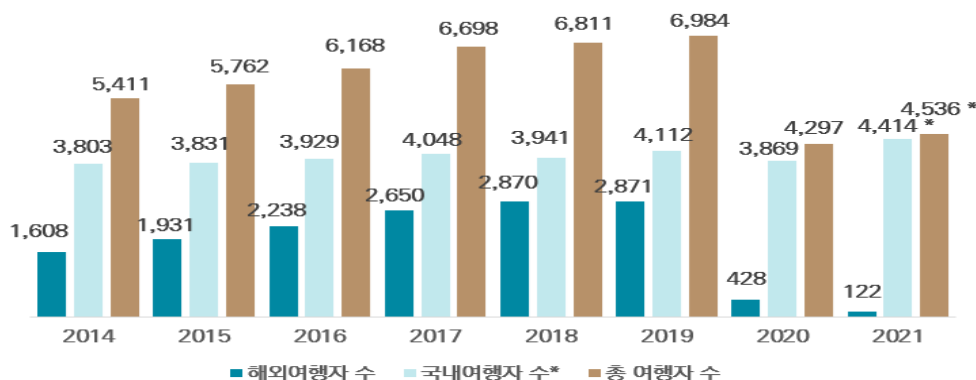
2021년 여행보험시장은 일상속의 여행 수요의 확대에 따라 국내여행보험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임.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① 일상에서 여가 활동 중심, ② 유연·편리함 추구로 전환됨.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활력을 위해서는 여행보험상품에 일상과 연계된 '생활 여행'을 위한 여가·레저 보장을 확대하고, 여행의 유연·편리함을 위한 여행 취소·중단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
○ 우리나라 여행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례없는 침체기를 겪었으나, 2021년부터 국내여행 중심으로 여행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(그림 1) 참고)

- 내국인 해외여행자 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,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평균 12%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나,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각각 85%, 71% 감소 등 2년 연속 크게 감소함
- 내국인 국내여행자 수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2020년 크게 감소하였으나,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를 흡수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¹⁾

〈그림 1〉 내국인 여행자 수 추이

(단위: 만 명)



주: 1) 2018년부터 국민여행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2018~2020년 국내여행자 수는 '15세 이상 전 국민 수×여행 경험률'로 산출함

2) {(국내 여행자 수-국내 여객 수)/국내 여행자 수의 3개년(2018~2020년) 평균=24.4%임}

3) 2021년 국내여행자 수(4,414만 명)=2021년 국내선 여객 수(33,383,740)/(1-24.4%)임

자료: 「한국관광통계」; 「국민여행실태조사(∼2017)」 각 연도; 「국민여행조사(2018∼)」 각 연도; 「항공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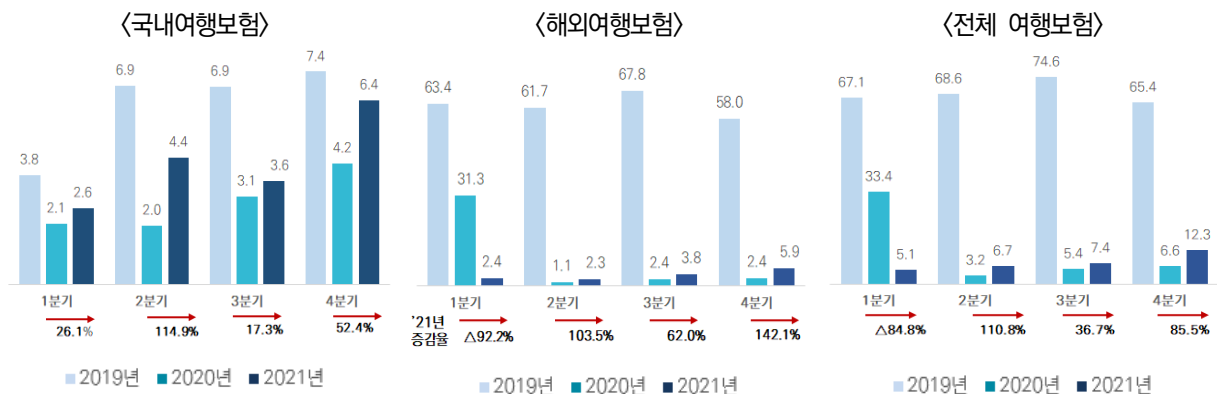
1) 2021년 국내여행자 수는 한국관광통계의 국내여행자 수와 항공통계의 국내선 여객수의 차이가 국내여행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년 평균치(24.4%)를 적용하여 구한 추정치임(2022년 6월 「국민여행조사」를 통해 실제 여행 경험률 발표 예정임)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 속에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함에 따라 여행보험시장은 국내여행보험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냄(그림 2) 참고)

- 2021년 국내여행보험 신계약건수는 17만 91건으로 2020년(11만 3,915건) 대비 49.3% 증가하면서 높은 회복세를 나타냈으며, 국내여행보험 원수보험료는 49.1억 원으로 2020년(38.2억 원) 대비 소폭 증가함
- 여행보험시장은 특히 2021년 2/4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전면 해제 등으로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

〈그림 2〉 국내 여행보험시장 분기별 추이(신계약건수 기준)

(단위: 만 건)



자료: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(2019년 신계약건수 기준 국내 여행보험시장 90.2% 점유)

○ 한편, 여행시장의 패러다임이 ① 일상에서 여가 활동 중심, ② 유연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됨

-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업무와 여행의 결합(워케이션(Work+Vacation)),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 지역에 머무르며 체험하기(Slow tourism),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 및 레저 활동 등에 대한 여행수요가 증가함
 - 근거리의 자연 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,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되거나 캠핑, 차박, 골프, 등산 등의 활동을 결합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
- 또한,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단계 상승 등으로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 중 일정이 변경되는 변수를 경험하게 되면서,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여행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유연하고 편리한 여행상품을 추구함

○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, 여행제한 조치 단계적 완화 등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여행보험시장의 점진적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, 해외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여행보장수요에 대응하는 모습임

- 2020년 글로벌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73%로 크게 감소하였으나, 2021년에는 7.4% 소폭 증가함²⁾
 - 2022년 1월 한 달간 글로벌 총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,800만 명 증가하여 지난 2021년 연간 증가 폭인 1,500만 명을 빠르게 넘어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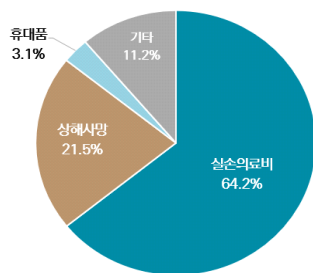
2) UNWTO(2022. 3. 25), "Tourism enjoys strong start to 2022 while facing new uncertainties"

- 미국 AIG의 경우 레저 활동을 겸한 여행자를 위한 특약(Adventure sports bundle),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자를 위한 특약(Pet bundle), 신혼 여행자를 위한 특약(Wedding bundle) 등 여행의 목적에 맞춤형 보장을 제공함
 - 미국 Chubb은 골프 여행자를 위한 여행보험(Passport 360)을 통해 골프 일정 취소에 따른 그린피 보장, 골프 장비 도착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보장함
 - 영국 Allianz는 스포츠 여행자를 위한 보험(Sports travel insurance)을 통해 번지점프, 스쿠버다이빙, 낙타 타기 체험 등 약 70가지 이상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보장함³⁾
- 미국 AXA 등 다수의 보험회사는 여행보험 계약자의 여행 취소 시 돌려받지 못하는 여행경비를 일정 한도까지 보장하는 '여행취소보험(Cancel For Any Reason; CFAR)'을 제공함
 - CFAR은 환불 불가능한 여행예약(Non-refundable trip booking) 후 14일 이내에 가입 가능하며, 일반여행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40~60% 정도 높으나, 여행 취소 시 여행경비의 50~75%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임⁴⁾
- 또한, 미국 Travel Guard는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자를 위해 다수의 여행을 한 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보장해주는 여행보험(Annual Travel Plan)을 출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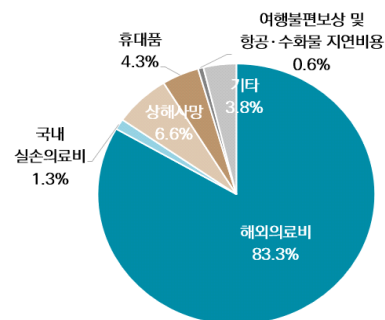
○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보험시장의 리오프닝⁵⁾을 위해서는 국내 보험회사도 일상과 연계된 '생활여행'을 위한 여가·레저 보장을 확대하고, 여행의 유연·편리함을 위한 여행 취소·중단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
- 여행수요 설문조사⁶⁾결과, 응답자의 대다수가 향후 1년 이내에 여행계획이 있고, 이중 과반수 이상은 국내·해외여행을 모두 계획하고 있으며, 다수의 응답자가 여행보험상품 선택 시 보장항목의 다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힘
 - 여행 보장수요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여행보험에 레저 활동 보장, 한 번의 가입으로 다수 여행 보장 등의 특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선택함
- 국내 여행보험상품 중 여행불편에 대한 보장은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·수화물 지연비용 정도로,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취소·중단과 관련된 보장은 없음⁷⁾

〈그림 3〉 국내 여행보험 담보 비중(2021년 보험료 기준)
〈국내여행보험〉



〈해외여행보험〉



자료: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

3) Sport&Leisure Travel Insurance | Allianz Assistance(Allianz-assistance.co.uk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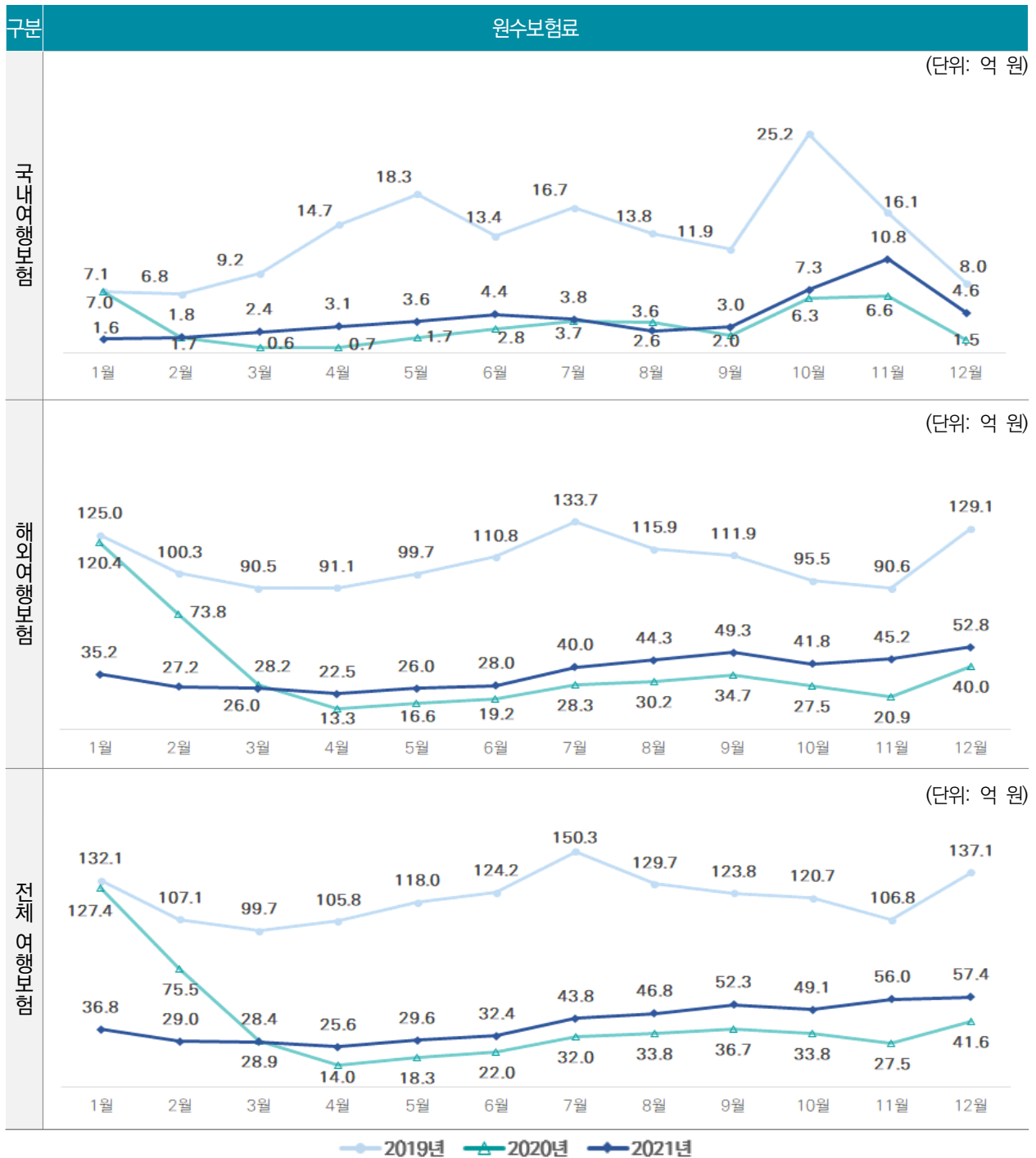
4) 정성희·문혜정(2021. 3. 2), 「코로나19 장기화와 여행보험시장」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5)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거나 위축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을 의미함

6)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함

7) 정성희·문혜정(2021. 3. 2), 「코로나19 장기화와 여행보험시장」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[부록] 국내 여행보험시장 월별 추이



자료: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